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우리의 기도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시편 118편 주는 존귀하신 분 / Highest Praise	다같이
대표기도		유건이
*성경봉독	눅 21:20-28	김유진
말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때 하나님 임재하실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하나님 지금 오소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눅 21:20-28)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 가지 말지어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신약과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항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눈앞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3년간 예수를 좇은 제자들도 정치적인 예수를 원했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크게 볼 때,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는 두 가지 방식은,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요소가 제거되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은 첫 번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위협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임박한 환란을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통해 평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첫 번째 평화의 방식에만 고착되었던 이유는, 주전 167년경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카비는 셀리우쿠스 제국의 유대교 핍박에 대항하여 끝까지 항전하였고,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하심으로 막강한 헬라제국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0여년 후 이들이 다시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억압을 받게 되자, 그들은 제2의 마카비 역할을 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는 로마 (독수리) 제국의 압제와 메시아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었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인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할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러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써 도래하는 두 번째 평화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인류의 구원과 악의 심판인데, 예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고착된 자기 신앙으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지 않았습니. 결국,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로마에 항전을 벌이는데 이를 유대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성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진멸되고, 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쓰라린 아픔을 다시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전쟁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묘사가 실제 유대전쟁 때 일어난 일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놀라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평화 방식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통한 두 번째 평화였기에 그들은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된 시기는 유대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사례는 오늘 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혹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요

이들이 실패했던 다른 요인은, 성경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다면, 그들은 이 구절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고착된 그들의 메시아 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잘못된 프레임을 만드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전쟁 예언에 이어 종말의 심판까지 예언하십니다.(눅21:25-28, 눅17장)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대전쟁이 그랬듯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갈수록 종말의 징조들은 더 확실해져 가는데 반해 기독교인들마저 종말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말신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산책

종말이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을 바로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장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눅21:34)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져 종말을 못 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 날이 닷과 같이 임하리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인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처럼 나는 나의 프레임에 갇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한 경험은 없었나요?
2.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나는 종말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소망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종말을 소망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장민구)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조학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Arise 찬양팀 팀원 모집

Arise 찬양팀으로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매달 첫째 주 금요일 8시 (8월은 쉽니다)
포지션: 싱어 혹은 그의 관심 있는 포지션
문의: 전하영

23-2기 일대일 인도자반 모집 : 9/26 - 11/28 (화요일, 현장, 8주과정)
문의 및 접수 : 성진원 집사 (jinwons@gmail.com)

다음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회

8/28(월) ~ 9/1(금) 6:30AM, ZOOM
월: 김준섭 목사 (영년부)
화: 이희정 전도사 (영유아부)
수: 곽은희 전도사 (유치부)
목: 김상범 목사 (청년부)
금: John Staples 목사 (EM College)

Youth 교사 모집

Youth 사역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현 집사 (512-762-0002)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Arise 금요 찬양 기도회

9/1 (금) 오후 8시, 분당
설교 : Brian Kim 목사 (Youth)
토요 무릎 기도회는 쉽니다.

중보기도 신청

교회 홈페이지와 중보기도함(사무실 앞)을 이용

생명의 삶 9월호 (권당 5월)

영유아부 교사 모집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시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청년 선생님을 구합니다.

8월 새가족 교육 수료식

김동은 김민정 김은영 박혜인 성지혜 성창현
박민호 우승균 이나현 이다영 이조안 임현진

환송

김민재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